

평창

# 광천선굴·더위사냥축제 상호 무료입장 이벤트...평창 대표 여름 관광 함께 즐긴다

강동휘 기자 yulnyo@kwnews.co.kr

입력 : 2026-07-24 13:45:28 수정 : 2026-07-24 13:45:28



광천선굴 모습

【평창】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24일부터 오는 8월2일까지 열리는 ‘평창더위사냥축제’ 기간, 광천선굴과 축제 함께 즐길 수 있는 상호 무료입장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번 이벤트는 광천선굴과 더위사냥축제를 연계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방문객에게 알찬 여름 관광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천선굴 또는 더위사냥축제 가운데 한 곳의 입장권만 구매하면 두 곳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광천선굴 관람권을 제시하면 더위사냥축제장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축제 입장권을 소지한 방문객은 광천선굴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단, 광천선굴 관람료 감면 기준은 별도로 운영되며, 입장권 구매 후에는 감 적용과 차액 환급이 불가능하다.

광천선굴과 더위사냥축제장은 차량으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축제 기간 1시간 간격으로 셔틀버스도 운행된다.

공단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화리조트 평창과 휘닉스파크 평창 투숙객을 대상으로 광천선굴 관람료 30 할인 혜택도 운영하고 있다.

최순철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광천선굴은 한여름에도 약 12도의 시원한 기온을 유지하는 평창의 대표적인 천연 피서지”라며 “더위사냥축제와 리조트 제휴 할인까지 연계한 다양한 관광 혜택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평창의 여름을 즐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동휘 기자 [yulnyo@kwnews.co.kr](mailto:yulnyo@kwnews.co.kr)  
입력 : 2026-07-24 13:45:28 수정 : 2026-07-24 13:45:28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최신순 추천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